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0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철인클럽

수영 3.8km·사이클 180.2km·마라톤 42.195km 17시간 완주

슈퍼맨들의 ‘마라톤 나들이’

해업치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 ‘철인’들이 몰려온다.

철인이란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17시간 내에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다. 바로 철인 3종 경기 중 ‘킵코스’를 통과한 이른바 ‘슈퍼맨’들이었다.

도전·열정·휴머니즘

맨’들이었다. 지난 1998년 광주에서도 철인모임인 ‘광주철인클럽’이 탄생했다. ‘도전·열정·휴머니즘’의 슬로건 아래 호남 지역 대표적 철인모임으로 성장한 광주철인클럽은 현재 인터넷 회원 450여명과 정회원 10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킵코스 완주자는 무려 70명. 심

상돈 광주철인클럽 회장은 “웬만한 운동 기록이나 체력으로는 이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선 안된다”고 너스레를 떨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첫 발을 들여놓기를 주저한다는 것이다. 전문 체육인들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입회라는 말조차 꺼내길 두려워 하는 초보자들도 많았다 한다.

하지만 전혀 겁 먹을 필요 없다는 것. 총무를 맡고있는 신장훈씨는 “물에 뜰 정도의 수영실력과 자전거 타고 넘어지지만 않을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회원들의 직종을 들여다보면 의사·교수·특전사·공무원 등 다양해 ‘전문체육인’만이 누리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심상돈(동아병원 원장) 회장은 “이 운동

이 중독성이 강하다”면서 “회원 중 운동 시작한 후 1년안에 포기한 사람은 있어도 3년 이상된 회원이 그만 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종목을 강조한다.

초보자들에게 수영·마라톤·사이클 코치들이 배치돼 쉽게 운동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0명 회원 하프코스 출전

도록 개인지도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빠른 사람은 운동 시작 3~4개월만에 킵코스에 도전 할 정도. 지난해 신입 회원 10명 중 5명이 철인 대열에 들어서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광주철인클럽은 평일엔 개인운동, 토·일



평소 철인 3종 경기 중독(수영·사이클·마라톤)으로 운동해 온 광주철인클럽이 이번 대회에서 하프코스에 출전, 상위권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요일엔 단체훈련을 갖는다. 실내 수영장과 장성 진원면·담양 한재골 등에서 수영·사이클 훈련을 하고 6~7월 중엔 무안해룡해수욕장에서 바다 수영을 실시한다. 꾸준히 닦아온 기량은 9월 태안그레이트맨대회에서 발휘된다.

평균연령 40대 중반인 철인클럽은 회원

9월 ‘태안그레이트맨’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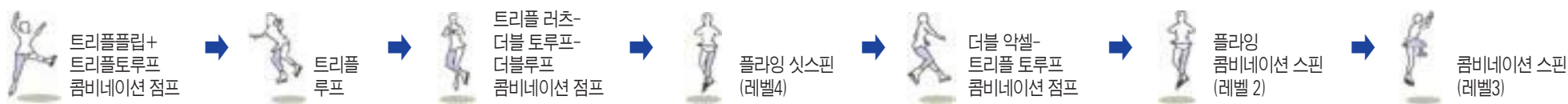
간 우에도 돈독하다. 힘들고 오랜 시간 함께 훈련 하다보니 전우에 같은 끈끈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지난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풀코

스에 출전했던 광주철인클럽은 이번 대회에 30명이 풀코스 아닌 하프코스에 출전한다. ‘천하의 막강’ 철인클럽이 ‘하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오후 희삼때문이라고..

운동 못지않게 회원간 단합도 소홀히 하지않는 광주철인클럽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주요 내용



여왕의 ‘몸짓’ 지구촌 홀렸다

김연아

4대륙 피겨 선수권 ‘189.07점’ 우승... 내달 세계 선수권 금빛 예감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우승 메달을 목에 건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 입학예정)가 세계피겨선수권대회(3월23~29일·미국 LA)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일찌감치 떠올랐다.

김연아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오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 실내빙상장에서 막을 내린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대회에서 총점 189.07점으로 연어 조에나 로제트(캐나다,183.91점)와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176.52점)를 밀어내고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

역대 4대륙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고양시에서 치러진 4대륙 대회에서 김나영(19·연수여고)이 4위에 올랐던 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지만 김연아가 국내 피겨 역사를 새롭게 썼다.

4대륙 대회 우승으로 김연아는 2008-2009 시즌 들어 두 차례 그랑프리 시리즈 우승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우승 세리모니를 펼쳐보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이제 이번 시즌 남은 과제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내는 일이다. 연아는 그랑프리 대회와 그랑프리 파이널, 4대륙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던 만큼 2년 연속 동메달을 따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만 우승 메달을 차지하면 ISU 주관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김연아는 지난 2006-2007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 출전한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 역시 한국 선수로는 처음 있는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고질적인 부상을 피하려고 철저한 사전 예방에 나선 김연아는 절정의 컨디션으로 4대륙 대회에 출전해 월등한 기량과 정확한 기술을 앞세워 당당하게 우승 시상대에 올랐다.

소프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2.24점)을 세우고 프리스케이팅에서 116.83점을 보태 189.07점으로 우승을 차지한 지금의 자신감과 컨디션을 유지해간다면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석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린 LA 스테이플 센터의 규격도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규격이어서 이번 4대륙 대회가 치러진 퍼시픽 콜리시움과 똑같은 점도 김연아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아가 훈련하고 있는 토론토 크리켓 빙상장 역시 세로축이 짧은 형태라서 김연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더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을 다룰 아사다가 이번 시즌 심한 부상을 보이는 점도 김연아의 금빛 도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4경기 한판승’ 왕기춘

파리 그랜드슬램 정상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1·용인대)이 파리 그랜드슬램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왕기춘은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73kg급에서 5경기 가운데 4경기를 한판으로 이기는 월등한 실력을 과시하며 우승했다.

1회전에서 이스마일 세르하트 캄부르(터키)를 경기 시작 1분13초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누린 왕기춘은 2회전에서 마디 쿠르야바예프(카자흐스탄)를 역시 4분23초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돌려세웠다. 3회전 상대 아와노 야스히로(일본)를 역시 경기 종료 34초를 남기고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으로 꺾은 왕기춘은 준결승 상대 질 보논(프랑스)을 상대로는 또 업어치기로 유효 2개를 빼앗아 결승까지 올랐다.

결승에서는 요르다니스 아렌시비아(쿠바)를 역시 3분08초만에 다리잡아 메치기 한판으로 제압, 정상에 우뚝 섰다. 5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수는 2회전과 결승에서 각 유효 1개씩 내준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뽐냈다.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회

한국 남녀 ‘금빛 질주’

세계 최강 한국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화끈한 금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주자 정은주(한국체대)는 8일(한국시간) 새벽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치러진 대회 이틀째 여자부 1500m 결승에서 2분24초411의 기록으로 미국의 캐서린 루터(2분24초483)를 0.062초 차로 따돌리고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함께 결승에 나선 김민정(전북도청)은 2분24초719로 선전했지만 주양(중국·2분24초698)에게 0.021초 뒤지면서 간발의 차로 동메달을 놓쳤다.

금메달 릴레이를 이어간 주인공은 남자 대표팀 민형 이호석(경희대). 이호석은 남자 1500m 결승에서 후배 성시백(연세대)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0.211초 차로 1위를 차지했다.

또 1,000m 결승에 오른 관용기(연세대·1분25초212)와 이정수(단국대·1분25초259)도 나란히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연합뉴스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피겨퀸’ 김연아가 8일 오전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프리스케이팅 메달 시상식을 마친 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불황그늘 ‘희망의 빛’

김연아 마케팅 ‘대박’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여 앞두고 김연아(19)의 인기몰이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그림자 속에 한국 경제도 흔들거리고 있지만 ‘김연아 마케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굳게 닫힌 기업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을 앞두고 절정에 달했던 국내 광고시장의 ‘연아 사랑’은 김연아가 4대륙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연아 빵’, ‘김연아 귀걸이’, ‘김연아 트레이닝복’, ‘김연아 물’ 등 내놓은 상품마다 박히트를 쳤던 김연아의 브랜드 가치 상승세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 체제로 바뀌게 됐다.

현재 김연아를 후원하는 메인 스폰서는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나이키 등 3개 기업. 또 광고 계약을 맺은 업체는 매일유업, 삼성하우젠, LG생활건강(샤프란, 라프베르), 아이비클럽, P&G(위스퍼) 등이고, 김연아와 관련된 상품을 파는 라이선스 계약도 제과업체 푸레주르와 보석전문 제이에스티나, 유니버설뮤직 등 세 곳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중과 광고를 시작한 삼성하우젠과 현대자동차는 ‘김연아 신드롬’의 최고 수혜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 1년 계약 광고의 출연료가 7~10억원에 이르는 특급 모델인 김연아는 지난해 광고 매출만 4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내달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우승한다면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올 전망이다. /연합뉴스